

광주·경남銀 매각 조세감면법 20일 국회 처리

기재위 조세소위 의견 모아...이용섭·강기정 “조특법 처리 앞서 향토은행화 방안 선행돼야”

정부의 우리금융 계열 광주·경남은행 매각 작업에 ‘정신히’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 열어 광주·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민 조세소위원장은 “오는 20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JB금융지주(전 북은행)와 BS금융지주(부산은행)를 각각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자본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 법안처리

절차가 기획재정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한데다, 특히 두 은행 인수에 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정서 등이 법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조세법으로 세금감면이 안 되면 지방은행 매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 상태여서 두 은행 매

각이 백지화될 수 있는 상태다. 국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특법 처리에 앞서 광주은행 향토은행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특법 법안 통과에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두 의원은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방안으로 투병크 체제 유지, 광주은행 자율경영 보장, 광주은행 직원 100% 고용승계 등을 촉구했다. 또,

신규채용시 지역인력 우선채용,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정 지분의 지역환원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를 요구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5000억원으로 알려진 JB(전북은행)금융의 광주은행 입찰 제시가격을 놓고, 할갈 매각 책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며 광주은행이 저평가된 데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양만권경제구역 신대배후단지 순천에코밸리 부지 17필지 분양

순천에코밸리라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잔여토지 17필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잔여토지는 상업·업무시설용지 10필지, 주차장용지 3필지, 산업유통시설 1필지 등이다. 공급 방식은 산업유통시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는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이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에 299만7095㎡ 규모로 2008년 3월 착공, 민간자본 5600여억원이 투자됐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최고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완료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IT업체 ‘정간아이앤씨’ 음성인식 지능형 CCTV 개발

‘레디고’ 이달말 시판 위급상황 인식 전송 범죄예방 효과 탁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위급 상황 시 소리를 지르면 음성을 인식, 현장화면을 곧바로 콜센터와 연결하는 CCTV(폐쇄회로 카메라)가 이달 말부터 시판된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IT업체가 첨단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 개발한 이 CCTV는 범죄 증거를 기록하는데 그쳤던 CCTV의 역할을 실제 상황 전송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어, 범죄 예방 및 경찰의 초동 수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던 메다 단순한 영상 녹화에 그쳐 사후 증거 확보용으로만 활용됐던 것을 크게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 24시간 화면에 노출됐던 반면, 레디고 시스템은 음성 인식시에만 작동이 돼 사생활보호에도 효과가 있다. 여 대표는 “학교나 아파트 등 설치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인식음성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어, 어디에서든 범죄에 대해 즉시 대처할 수 있다”며 “기존의 CCTV와 이 제품을 연동시키면 범죄 현장 영상 확보는 물론, 초동 대처도 가능해 범죄예방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홀로 계신 노부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경찰 신고가 쉽지 않은 가정폭력 발생시에도 경찰 및 구급대가 쉽게 조치할 수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될 수 있다.



16일 광주의 IT 업체 (주)정간아이앤씨의 한 관계자가 음성을 인식해 긴급상황을 신고하는 ‘레디고’(REDIGO) CCTV의 화면 전송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레디고 시스템, 범죄 발생 즉시 출동 가능 피해 줄여”

여운환 정간아이앤씨 대표

“아직 출시도 전인데, 드라마 간접광고상품 출연 요청이 왔어요. 범죄 예방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CCTV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운환 (주)정간아이앤씨 대표는 “이미 설치된 대부분의 CCTV는 고정식인데다,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가 발생한 뒤 영상확보에만 그친 ‘방어 카메라’였다”며 “레디고(REDIGO) 시스템은 범죄 발생 즉시 경찰의 출동이 가능해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껍데기만 있는 가짜 CCTV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카메라들이 ‘긴



급상황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되면 더욱 효과를 볼 것”이라는 생각 끝에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잔여토지 공급일정은 신청접수 19일, 입찰 및 낙찰자 발표 20일이며 계약체결일은 21일 수의계약과 함께 이뤄진다. 입찰신청 및 계약 장소는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길 28 순천에코밸리㈜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문의(061-722-722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금호타이어-요코하마고무 기술제휴 본계약 조인식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나구모 타다노부 요코하마 고무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日 요코하마고무 기술 제휴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시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5일 세계 8위의 타이어 기업인 일본 요코하마고무와 기술 제휴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나구모 타다노부 요코하마 고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원천기술을 포함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R&D, 공정, 생산기술을 공개해 글로벌 타이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현재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2%대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타이어 ‘빅(Big) 3’에 근접한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요코하마 고무씨는 1917년에 설립된 일본 회사로, 지난해 매출은 6016억엔(연결기준)이며 타이어 매출은 4795억엔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등첨번호	2등번호	3등번호
6 7 10 16 38 41	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620,546,334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4,018,212	45
3 5개 숫자 일치	1,590,851	1,528
4 4개 숫자 일치	50,000	79,691
5 3개 숫자 일치	5,000	1,339,079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